

풍부한 산림자원의 메카로!

전북도, 오늘 산림분과 포럼 개최... 각계 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전북도는 산림농정위원회 산림분과(위원장 양용택) 주관으로 산림청, 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림분야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국립지리원 산림치유원 거버넌스 및 산림 치유의 숲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산림분야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 휴양림, 도시숲, 산촌체험휴양마을을 연계한 전북의 치유의 숲 활성화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을 위해 산림치유 수요에 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이 주는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산림치유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산림교육·치유정책 방향과 국립지리원 산림치유원 기본계획 수립에서 발표하고, 지역과 함께 웃고 함께 사는 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상생을 주제로 한 발제와 그에 따른 전문가 패널의 토론, 정책제언 등이 이뤄진다.

박형우 전북산림치유지도사회회 사

무국장은 "전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해중 도 산림복지과장은 "앞으로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전북을 풍부한 산림자원과 연계한 휴양·치유시설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산림치유 1번지로 가꾸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공무원노조연맹 간담회

송하진 도지사는 9일 도청 접견실에서 전북도공무원노조연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전북도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도 상반기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대표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도 인구가 6월말 현재 182만1671명으로 2018년말 대비 1만115명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47년에 158만명으로 현재보다 25만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와 어느 때보다 부서 간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도 상반기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대표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9년 상반기 인구정책이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목표 6대 분야 187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부서별 자체 인구효과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도는 앞으로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 인구적 관점에서 효과성을 염두하며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현재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무주와 순창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고, 청년지역정착 사업(청년수당)은 2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 하는 등 중앙과 도·시군의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들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사람이 있어야 전북이 있고 미래가 있다"며 "인구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과 인구변화 인식 및 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교통문화연수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전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올해 상반기 도민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165회, 5만8700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연수원은 운수종사자에게 교통관련 법규와 친절서비스, 자기안전에 대한 안전운전요령 및 교통법규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안전보행, 교통수단 안전이용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은 8736명이 이수하였고, 교통분야 지식과 정보 전달을 위한 공무원 교통전문교육은 339명,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사회교육은 4만9625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당초 계획한 교육일정 외에도 '시·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등 1만455명을 대상으로

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같은 교육성과로 전년 동기 대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4명에서 11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도민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송승모 교통문화연수원장은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과 교통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진청, 과수화상병 근본해결 위한 연구개발 추진

기초연구 우선 추진 · 관련 예산 확보 · 방제활동 강화 등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과수화상병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화상병 방제를 위한 기초연구를 우선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방제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처음 국내에 발생한 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동안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발병역제를 위한 사전 예방약제 실험과 예방활동을 지자체, 과수 농가와 협력하여 추진했다. 하지만 전년도 발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첫 발생한 이후 7월 7일 현재까지 6개 시·군 137농가 94.9ha로 확산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규명과 중장기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종합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등 연구강화를 위해 본청과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과수화상병(화상병) 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규명, 방제기술 및 저항성 품종개발 등 방제를 위한 기반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추진하기로 했다.

단기과제로는 ▲신속 예방 및 간이 적리시설 활용 현장연구 ▲화상병 발생지역 정밀조사 ▲해외 선진국의 방제체계 및 기술도입 등을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과제로는 ▲화상병 예측모형 개발 및 확산경로 ▲저항성 품종 개발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연구 시설(BL3급) 신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식물 병해충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의 차폐 시설(BL3) 설치와 과수화상병 등 문 제병해충 피해경감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방·방제기술 강화를 위해 고위험 병해충 관련 전공자 및 현장 조사 전문가를 총원하고, 폐원된 농가를 위해 농촌진흥청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목 추천과 기술지도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과수화상병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청의 모든 연구와 지도역량을 집중하여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식 세계화 주도 할 한식꿈나무 '모여라'

국제한식조리학교 2학기 단기과정 신입생 모집 중

대한민국 대표 한식전문조리학교인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가 도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19학년도 2학기 실습 위주의 단기과정 신입생을 오는 8월 23일까지 모집 중임을 밝혔다.

국제한식조리학교(CCIK)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한식 셰프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뜻을 모아 우리나라 최초로 2011년 설립하여국내외 다수의 셰프를 배출하였고, 해외 진출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도 충실히 갖추고 있는 글로벌 한식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부의 교육 공신력을

인증받은 평생교육원이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특별히 단기과정으로 향토음식, 저장발효음식, 궁중의례음식, 찬품, 아시아조리(일식·중식), 한식디저트카페 및 제과제빵 등을 개설하고 각 분야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사진을 구성하여 외식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성공사례 및 현장감 있는 실무 노하우 등을 전달하고 이와 병행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하여 취업 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글로벌 전문 셰프를 양성하여 취업·창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2012년 9월에 개원하여 한식 세계화를 주도할 한식 조리 전문인력을 양성해 2019년 3월까지 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98명의 국내외 취업을 성공시켜 '한식 스타 셰프'를 배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재용 농축수산물품목장은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미국의 CIA, 프랑스의 Le Cordon Bleu, 이탈리아 ALMA와 같은 세계적인 조리학교를 모델로 국제적 감각의 한식 스타셰프의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한식의 스타셰프를 양성하여 한국 음식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한식전문조리학교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